

전체 

신선 

가공 

수산  



농수산물 수출

Zoom In 104호

I

배 신제품 '그린시스' 맛본 싱가포르 유명 요리사 엄지척



II

농촌진흥청, 실시간 온라인 판매로 신선 농산물 수출길 열어



III

'22년도 한-베 식물검역전문가회의 개최



농수산물식품 수출 Zoom In 104호

2022. 12. 15(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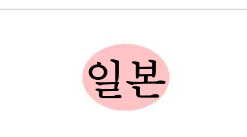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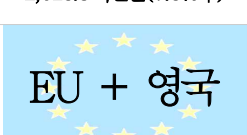
‘22.11.30까지 농수산물식품 수출 전년 동기 대비 7.0% 증가한 110.0억\$

부류별

신선	가공	수산
  1.4% 1,398.5백만불	  5.2% 6,676.7백만불	  16.4% 2,917.7백만불
+ 닭고기, 사과, 단감 - 인삼류, 김치, 파프리카, 딸기	+ 면류, 과자류, 쌀가공식품 - 쥬얼, 인스탄트면	+ 참치, 명태, 대구, 연어 - 김, 굴, 어묵

국가별

*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미국 1,507.0백만불(△0.2%)	경기 악화에 따른 소비 둔화가 가시화되면서 감소세	 배(18.4%), 유자(18.8%) 음료(10.1%), 쌀가공식품(28.1%)  버섯(△21.7%), 닭고기(△14.5%) 소스류(△2.6%), 김(△1.3%)
  중국 2,010.0백만불(9.3%↑)	고강도 방역조치로 가공 감소세 돌입하면서 전체 증가세 둔화	 명태(134.5%), 라면(25.6%), 주류(4.5%)  인삼류(△18.8%), 조제분유(△0.7%)
  신남방 (ASEAN + 인도) 2,291.1백만불(9.5%↑)	신선 증가세 지속되고 있으나 가공 증가폭 줄어들면서 증가세 둔화	 참치(30.2%), 음료(16.7%) 닭고기(90.4%), 인삼류(47.3%)  리큐르(△15.3%)
  일본 2,018.3백만불(7.8%↑)	물가 상승과 엔저에 따른 가격경쟁력 약화로 전체 증가세 둔화	 연초류(28.5%), 과자류(25.3%) 김(3.4%),  파프리카(△8.6%), 김치(△24.5%) 라면(△4.7%)
  EU + 영국 692.4백만불(9.3%↑)	유럽 주요 항구 냉장·냉동 컨테이너 통관 강화와 소비위축으로 신선 감소세 심화, 전체 증가세 둔화	 김치(2.2%), 인삼류(10.0%), 참치(4.8%)  버섯류(△21.2%), 김(△11.5%)

☆  : 15%이상 /  : 5~15% /  : 0~5% /  : 0~△5% /  : △5~△15% /  : △15%이하

품목별 이슈

* 실적 : '22.1.1 ~ 11.30

□ 인삼

- (중국 73.0, △18.8) 고강도 방역 조치의 지속과 소비 침체로 감소세 지속
- (베트남 39.2, 62.1 ↑) 합리적인 가격과 섭취의 편의성을 높인 간편 소비제품 인기
- (일본 32.2, 5.5 ↑)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심리 둔화로 감소세

227.9백만불 (△2.5%)

주요 수출국 : 중국(73.0백만불, △18.8%), 베트남(39.2, 62.1%), 일본(32.2, 5.5%), 미국(28.4, △12.2%), 대만(22.0, 23.7%), 홍콩(13.2, △35.4%)

□ 파프리카

- (일본 67.9, △8.6) 일본 내 물가 상승이 심해 소비자 수요 침체가 지속되고 있으며, 한국산 파프리카의 단가가 확연히 낮아지지 않고 있어 수입에 대해 미온적인 상황으로 감소세 지속

68.1백만불 (△8.6%)

주요 수출국 : 일본(67.9, △8.6%), 홍콩(0.1, △16.8%), 베트남(0.03, 67.5%), 중국(0.03, △57.0%)

□ 배

- (미국 30.8, 18.4 ↑) 추수감사절, 크리스마스 등을 앞두고 현지 교민을 중심으로 선물용 수요가 늘면서 미국 증가세
- (대만 15.8, △28.2) 자체 육성 품종(감로)이 인기를 끌면서, 한국산 배 수요 감소

60.7백만불(3.9% ↑)

주요 수출국 : 미국(30.8, 18.4%), 대만(15.8, △28.2%), 베트남(7.3, 79.0%), 홍콩(1.7, 1.7%), 캐나다(1.3, △0.5%), 인도네시아(1.0, 48.7%)

□ 김

- (미국 138.4, △1.3) 경기 침체에 따른 소비 둔화가 본격화되면서 감소세로 반전됨
- (일본 109.5, 3.4 ↑) 코로나 이후 가정용 B2C 조미김 수요 증가로 수출 증가
- (중국 90.6, △28.2) 잦은 봉쇄와 고강도 방역정책 영향으로 감소세 지속

609.1백만불(△2.7%)

주요 수출국 : 미국(138.4, △1.3%), 일본(109.5, 3.4%), 중국(90.6, △28.2%), 태국(40.6, 9.1%), 러시아(37.9, △11.6%), 대만(28.1, 16.0%)

☆ 자세한 동향 관련 내용은 aT kati(www.kati.net) > 수출 동향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농수산물식품 수출 Zoom In>은 월 1회 발행됩니다 (문의처 : aT 수출기획부 061-931-0817,8)

농진청 이슈



배 신품종 '그린시스' 맛본 싱가포르 유명 요리사 엄지척

배 신품종 '그린시스'가 세계적인 식당 안내서 '미쉐린(미슐랭) 가이드'에 소개된 싱가포르 유명 식당의 요리사 입맛을 사로잡았다. 농촌진흥청 15일 미쉐린 별을 받은 싱가포르 현지 식당 2곳, '메타레스토랑(Meta Restaurant, 미쉐린 1스타)과 '클라우드스트리트(Cloudstreet, 미쉐린 2스타)에서 미쉐린 요리사를 비롯해 현지 유명 요리사를 대상으로 '그린시스'의 겉모양과 당도, 식감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그린시스'는 농촌진흥청에서 동양배와 서양배를 교배해 2012년 육성한 품종이다. 무게는 1개당 460g으로 크지 않아 1인 가구도 부담스럽지 않게 먹을 수 있다. 당도는 12.3브릭스 정도이며, 과즙이 풍부하고 산뜻하며 시원한 맛이 일품이다. 이번 평가회에 참여한 요리사들은 "'그린시스'는 과즙이 많고 식감이 딱딱하지 않아 남녀노소 모두가 좋아하는 후식 차림에 잘 어울린다"라고 평가했다. 특히 클라우드스트리트(Cloudstreet) 식당의 마이라 요(Maira Yeo) 요리사는 "'그린시스'와 같이 새로운 외국산 농산물에 대한 싱가포르 고소득층의 수요가 늘고 있는 만큼, 크기, 맛, 식감, 겉모양이 독특한 한국의 신품종 농산물을 적극적으로 소개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농촌진흥청, 실시간 온라인 판매로 신선 농산물 수출길 열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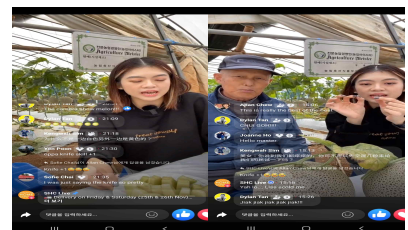
실시간 소통 판매(라이브커머스)를 통해 우리나라 신선 농산물이 싱가포르 수출길에 올랐다. 농촌진흥청은 20일, 고품질 멜론을 생산하는 군유농장(전라북도 고창군)에서 싱가포르 SHC 그룹(Singapore Home Cooks Group) 온라인 거래터(플랫폼)를 활용해 실시간 소통 판매(라이브커머스)를 진행한다. SHC그룹은 약 23만 명의 싱가포르 소비자 회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날 실시간 접속자 수만 약 500명, 방송 후 약 7,000건의 조회 수를 기록했다. 약 1시간 동안 진행된 방송에서는 농업 분야 장인(농업마이스터)이 생산한 고품질 멜론, 최고 상품 기준인 당도 18브릭스 이상의 대과 샤인머스켓, 한국산 고품질 홍삼 제품을 싱가포르 소비자에게 홍보하고 판매했다. 그 결과, 멜론 40박스, 샤인머스켓 30박스, 홍삼 100박스가 팔려 총 판매 금액이 17,000 싱가포르 달러(약 1,700만 원)에 달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실시간 소통 판매(라이브커머스)에 참여한 싱가포르 소비자들은 "한국 최고 장인이 생산한 멜론이네요", "샤인머스켓 알이 작은 사과만 해요" 등 상품에 대한 큰 관심과 좋은 평가를 실시간으로 남기며 구매를 결정했다.



<온라인 판매 소개>



<멜론 생산농가 홍보>



<실시간 온라인 예약판매>

☆ 농진청 이슈 문의 ☆ 농촌진흥청 수출농업지원과 063-238-0673



'22년도 한-베 식물검역전문가회의 개최

◇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이하 '검역본부')는 한-베트남 양국간 식물검역현안 협의를 위해 「한-베 식물검역전문가회의」(김천(영상), '22. 11.16.)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를 통해 양국은 주요 관심 품목인 참외 및 포멜로 수입허용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 농산물 무역 확대를 위한 위험평가 절차 가속화에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또한, 베트남측에서는 한국의 개도국 훈련 프로그램 운영 등에 대한 사의를 표명하는 등 한국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요청함에 따라, 검역본부는 양국의 우호적인 관계 유지를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22년도 개도국 식물검역전문가 초청 연수 사업 실시

◇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이하 '검역본부')는 '22.11.21 ~ 11.30일 10일간 김천(검역본부 소재), 순천, 전주, 부산에서 ASEAN 국가 등 개도국 6개국으로부터 식물검역전문가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수사업이 진행되었다. 개도국 식물검역전문가 초청 연수사업은 '05년 ASEAN+3 농림장관회의에서 처음 제안되어 '06년부터 추진되어 오고 있다. 이번 연수사업에서는 한국의 식물검역시스템 및 국제협력, 저장 곡물 해충에 대한 이론 강의, 해충 DNA 바코드 관련 실습 등 우리의 기술을 선보이고, 수출입 검역 현장도 방문하였다.. 검역본부는 개도국 식물검역전문가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연수생들은 새로운 지식들을 습득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으며, 자국의 다른 동료들에게도 이런 기회가 주어지길 바란다는 등 호평을 받았다고 한다.

☆ 외국의 농산물 수출검역요건은 농림축산검역본부(www.qia.go.kr) > 수출식물검역정보 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 식물검역 이슈는 월 1회 발행됩니다. (문의처 : 농림축산검역본부 수출지원과 054-912-0623)